

山淸斷俗寺 大鑑國師 塔碑의 斷片

崔 泳 喜

近年 서울大學校 博物館에 收藏된 斷碑(朴在昉氏舊藏)二片中의 하나는 斷俗寺에 建立되었던 高麗大鑑國師塔碑 (今亡)임이 判明되었다。 橫三三㎝ 縱一四㎝의 小片인 바 最終六行의 「□□二十」 針水」 道尊」 跏趺入」 大金大定十」이 남았으며 周緣에는 童子蓮花唐草文帶를 中心으로 그 左右에 雲文과 雷文이 線刻되어 있다。 石質은 黑色靑石이다。 (參照:「朝鮮金石總覽」上卷 五六五頁 金大定十二年 壬辰은 高麗明宗二年 一一七二 A、D)

在日 高麗靑銅銀入絲香垸의 新例

黃 壽 永

昨年 十二月 故 藤田亮策氏(奈良文化財研究所長)에 의하여 그의 別世直前에 調査되었다。 日本奈良의 河瀨虎三郎氏所藏으로서 通型인 바 (高二六㎝ 口徑 一五·四㎝) 垸體에는 四梵字가 있고 그 間地와 台座에는 細入絲의 雲鳳文이 있다。 銘文은 台座下側面에 刻記되었는 바 「大定四年丁卯八月日白月庵香垸棟梁玄旭」이라 하였다。 現存 在銘品으로서 最古紀年인 大定四年은 高麗 毅宗十八年甲申 (西紀一一六四年)으로서 干支의 錯誤인듯 하다고 하였다。(「大和文化研究」六—三「藤田先生追悼特輯號」卷頭의 遺筆「銀象嵌香爐の一例」및 圖版參照)

大邱 石氷庫碑

秦 弘 燮

大邱 觀象台에 保管되어 있다。 氷庫는 完全히 破壞되었고 碑만 남아있다。 높이 一八〇㎝ 幅 五五㎝로 碑文은 如左하다。

石氷庫碑銘

氷室之病民厥惟痼哉三歲一繕殫民財力思欲代石「用代塗茨而時詘擧贏莫就輿願矣幸我判官俞公「諱命岳來莅未朞惠化克覃銳志革弊鳩財僝工築石「爲塲駕虹成屋凡九架而功訖始事於孟春之望完役 「於首憂之晦正所謂庶民子來不日成之者也其間娘「畫之方施措之宜迺出常慮動中娘矱方諸古昔未之「曾有傳之來裔永賴無窮嗚呼休哉民其蘇矣初鼈八「百解營米以資經用終焉自官備償不徵民戶其爲思「德欲報罔極不有顯刻何述偉績遂 爲之銘 曰 斲彼雲根虹作室 刻我亘瘼民永逸澤侔天弘書未悉 名齋地久銘以刻

座首 幼學 金璹 楊鼎和

都監 進士 都爾諧

幼學 崔壽徵 徐海 李光全

監官 折衝 孫正邦

司果 裵俊成 裵尙祚 裵震錫 蔡斗瑞 徐允達

都色 洪致雲
色 金聲重 徐信業 金自中 金天年
都領 僧 善元
都石手 林玉立
邊手 金汝柱
使令 李仁白 安柱民
崇禎後甲午至月 日

考古美術 뉴ㅡ스

◎ 古美術品海外展示委의 開催

六月二十一日 文敎部文化局長室에서 開催되었는 바 方今 歐州에서 巡回中인 古美術品展示國의 追加 (葡、瑞、墺 三國豫定)에 대한 決定顚末과 그 間의 進行狀況에 對하여 外務部 閔事務官의 說明과 이에 對한 各 委員의 意見陳述이 있었다。出席 委員 金晬基 李丙燾 全鎣弼 金元龍 黃壽永

◎ 歐州古美術品의 和蘭展示開催

英國에서 展示를 終了하고 그 間 包裝運送이 無事히 進行되어 지난 六月 十五日부터 和蘭 헤그의 市立博物館에서 開催되었다는 바 期間은 八月 十四日까지 二個月間이라 한다。

◎ 古代住居址의 發掘

高麗大學校 博物館에서는 文化財保存委員會의 決意를 거쳐 지난 六月 二十一日부터 二十七日에 걸쳐 京畿道 廣州郡 九川面 明逸里에서 古代住居址를 發掘하였다。그 結果 表土下 約 二〇㎝에서 徑 約 五m의 모를 죽인 方形 住居址가 若干基 發見하였다하며 爐址와 기둥자리도 發見되었다 한다。同住居址에서는 맷돌 石劍、石鏃、砥石 等 多數가 出土되었다 하는데 同 遺物은 同 大學博物館에 保管되어있다고 한다。

◎ 燕岐郡 公州郡 扶餘郡의 調査

同人 黃壽永 秦弘燮 兩氏는 지난 六月 二十四日부터 二十六日에 걸쳐 前記地域을 旅行하여 古調를 띤 四面碑像 二座를 調査하였다 한다。同碑像은 碑岩寺石像과 類似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內容은 本誌에 紹介되리라한다。一行은 補修對象으로 되어있는 公州 宋山里 古墳郡과 公山城 一帶를 돌아보고 公州邑 鳳凰洞 洪氏宅에 있는 石獅子 二軀와 布敎堂銅鐘(乾隆六年銘)을 調査하였다。扶餘에서는 王興寺址와 落花岩 岩石에 「三千」만을 刻字한 現狀을 돌아보았다 한다。

石窟庵 彫像의 敎理背景(一)

閔 泳 珪

一

佛國寺와 石窟庵의 現存遺構에선 異常하게도 華嚴信仰과의 關聯을 發見 못한다。이들이 建造된 西紀七五〇年을 前後하여 日本에서는 奈良에 東大寺大佛이 그리고 地方에 丈六佛이 鑄造 奉安되었으되 그 國家造成을 원통 華嚴一色으로 謳歌코 있던 때였음을 생각할때 筆者가 여기서 먼저 奇異한 느낌을 禁할 수 없는 問題는 이 點에 관해서였다。

極樂殿엔 現在 坐高四尺의 智拳印을 맺은 銅鑄佛이 계신다。얼마전에 大雄殿에서 移安했다는 것이오 景德王朝의 佛敎美術의 精華를 여기서 보았노라 讚歎하는 이가 있었으나 모르는 말이다。이 毘盧遮那佛은 景德王朝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가지 理由를 가지고 있으며 佛國寺、石窟庵의 建造와도 關聯한배 없는 부처님이다 라고 나는 믿고 있다。첫째로 이 銅鑄佛의 智拳印은 아직 景德王朝에 造顯될 性質의 것이 아니다。더우기 그 左右의 手位가 바뀌어져 있으되 이러한 現象은 新羅末期의 佛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例이기도 한 것이다。둘째로 이 四尺高의 坐佛이 大雄殿의 本尊이 될 수도 없었으려니와 壬亂의 火災로 말미암아 원통 境內의